



환경부



SOS 기후행동!
나의 지구를 구해줘

하 느리지만 큰 걸음의 영향력

2020
친환경
교통주간
9.16~9.2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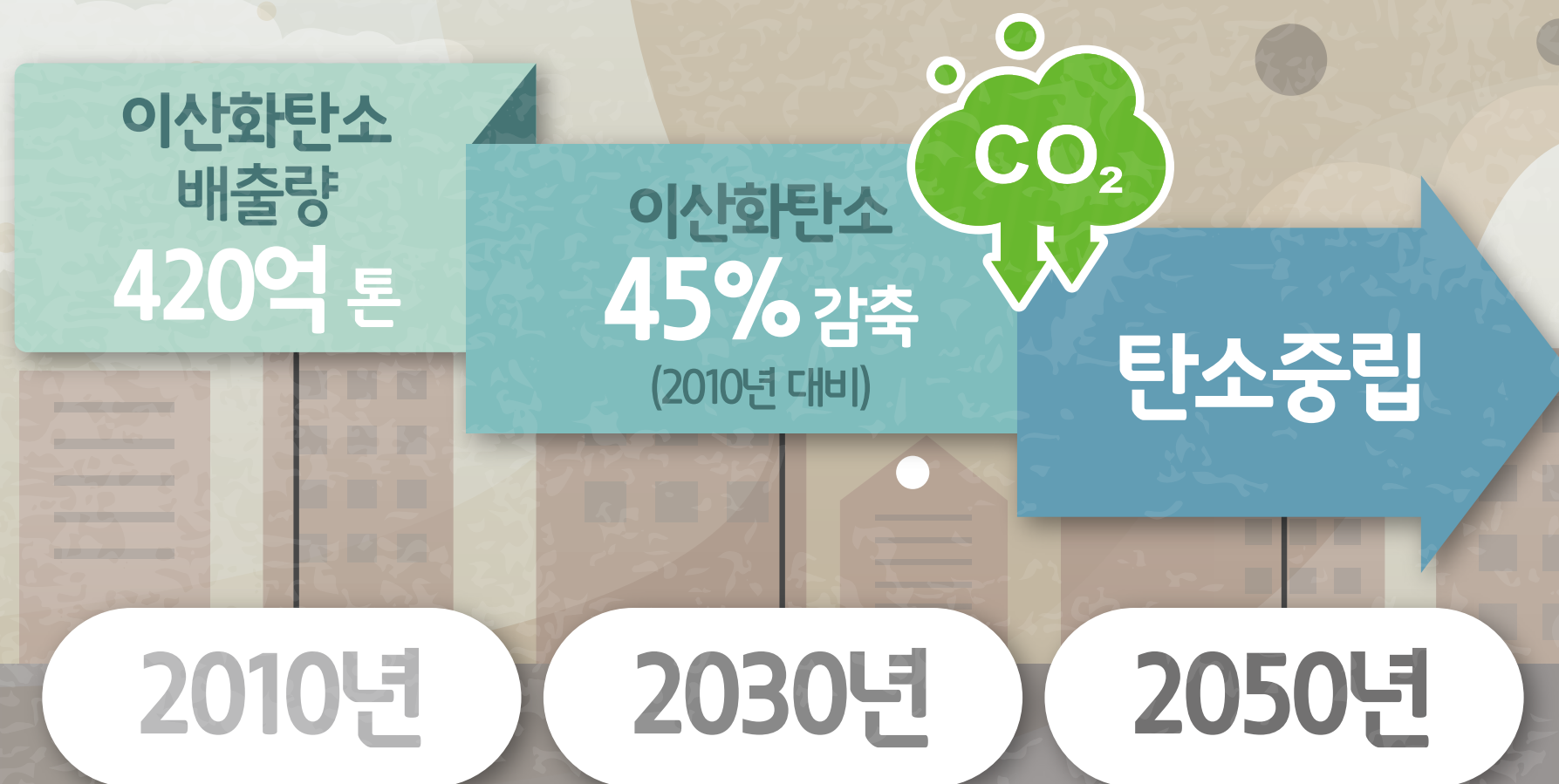
함께 알아볼까요?



인간의 편리를 위해
발달해 온 교통수단!
하지만 교통수단에 의한
온실가스 배출이
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
미친다는 것,
알고계셨나요?

※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
13.2%(94백만 톤, 2017)가 도로교통에서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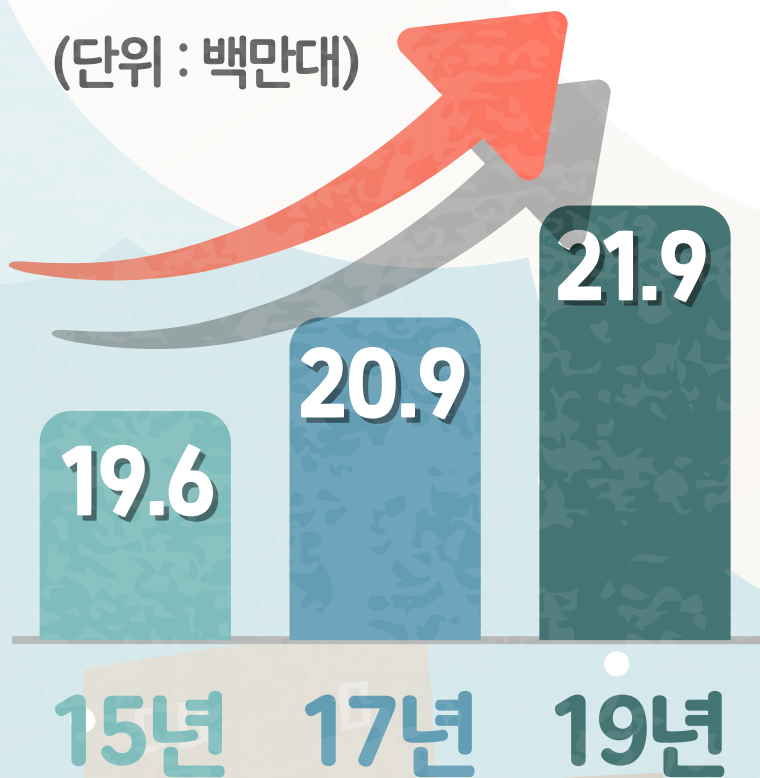
제48차 IPCC 총회('18년 10월)에서는
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
1.5°C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
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,
이에 **2050년까지**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
흡수하여 중립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요.



하지만, **자가용 자동차 등록대수**는
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
관·자가용 차량의 **62.3%**가 출퇴근용으로
사용되고 있고, 특히 출퇴근 시 탑승인원은
1.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

**자가용 자동차
등록대수**

(단위 : 백만대)



**관·자가용 차량
주 용도와 탑승인원**

62.3%

출퇴근용으로 사용

1.1명



출퇴근 시 탑승인원



*출처 : (한국에너지공단, 2017 에너지총조사보고서), (국토교통부 통계)

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계획

미래차 보급

미래차(전기수소) 133만대 보급
충전 기반시설 구축
~2025년



미래차 대중화

자동차 신규 구매자
5명 중 1명 미래차 선택
2025년



미래차 대중화 시대
본격화 기대



버스, 택시, 화물차, 배달용 이륜차 등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 보급을 위한 노력도 지속

정부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없는
지속가능한 **친환경 교통체계 구축**을 위해
그린 모빌리티 보급을
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
‘친환경 교통주간’도 지정, 운영합니다.



친환경 교통주간 안내

- 2020. 9.16 ~ 9.22까지 일주일간 운영 -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외출은 자제해주시고,
자가용 운전자는 친환경 운전으로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!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13	14	15	16	17	18	19
20	21	22	23	24	25	26



2020년 '친환경 교통주간'은
잠시 이동을 멈추고
사람과 도시, 지구 모두가 만족하는
교통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!



불필요한 외출 자제



친환경 운전수칙 안내

- 경제속도 준수하기
- 3급(급출발, 급가속, 급감속)하지 않기
- 불필요한 공회전은 그만!
- 자동차를 가볍게, 트렁크 비우기



친환경 운전하기



친환경 자동차 이용



2m 거리두고
도보나 자전거 이용





환경부



SOS 기후행동!
나의 **지구**를 구해줘

코로나19가 사라지고,
우리가 다시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면
때로는 느리고 번거롭지만

‘지구를 위한 한 걸음’
우리 모두 함께 실천하기로 해요!

